(北京二十五日愛) 李景林은 (北京二十五日愛) 李景林은 (北京二十五日愛) 李景林은 (世別中央의命の從から行動室 三書際明하고且率天으로의國係 門全部号免職公表に라

AUSTRALIA. . The Undiscovered Continent.

Although geographically discovered. Australia is little known to the world. It is an unknown kind to some who have become interested in world problems. Its three million square miles is occupied by less than 6,000,000 people. Just imagine the population of New York City being spread over the United States, or, rather, it would be more correct to say being divided into halves, one portion living in about four or five large cities in widely separated areas and the remainder speed over a strip of territory near the

About 50 per cent of the people of Australia are living within the city on a forage of coastal areas in the eastern and southeastern portion of the land, with a separate small aggregation on the southwest

Sydney and Melbourna are the only big cities. The reason for this populated fringe is that the unoccapied portions are more or less uninhabitable because of lack of water and other natural drawbacks. It has been estimated that two-thirds is unsuitable for permagent settlement and that very large areas will never be fit for men to dwell in. Australia has been likened to a basin with the rim only occupied. Even this is not tru , as quite more than half of the edge is still

in much the same position as when Dampier declared it worthless years ago. Much of the interior is a desert, second in size only to the

Sahara, with a few marshy lakes remaining from the rivers which used to flow inland from the mountains near the coast. These old rivers are dried up except that a few of them may develop into spasmodic torrents in the

border lice.

coast in Weste n Australia,

event of an infrequent rain.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Friday, Nov. 27th. 1925.

「義州」 요사이 義州の と結 で 双一個月の 姙娠 写 双 一 一 任 禮 式 이 し と 立 女 性 の 以 け 「 佐 禮 式 이 し 日 立 女 性 の 以 け 「 佐 禮 式 이 し 日 立 大 性 の 以 け 「 佐 禮 式 이 し 日 立 大 性 の 以 け 「 佐 禮 式 이 し 日 立 大 性 の 以 け 「 佐 禮 式 이 し 日 立 大 性 の 以 け 「 佐 禮 式 이 し 上個約 烈月婚

地方人事消息

他条件活用電に対すると記り

ব

仰那聯

十一月二十四日自宅の分選外▲金乗國氏(本報編尾支局顧問)

義州出生及死亡數 義州面の分取扱한今年一月早日十月外入의出生者及死亡者數量 亡の二五六名인が毎月의出生者 の死亡者到數爻毫示望忍叶如左 が日司(義州)

9

禁酒陶煙可件每日曜休菜件

0

盟

O'

에게운소년회(開那少年會) 신(刑事의품心)이라는것은 전(刑事의품心)이라는것은 건(刑事의품心)이라는것은 건(刑事의품이를이르킨호보지

四金なりなけ

窃盗

江西郡雙龍面菖浦里四九四)에 사는 로또찬(盧濱寨)(吳)과 동 군장인면보황의에사는 어원수 (同郡長安面屬風里魚元恩)(為) 은 동면공동묘디에 매장하명(는 신화의 시례를 허가업시심상히 당군정찰관의 리를 하기업시심상히 당군정찰관의 라이 물지 무늬것이 무리에 심원에 취하였다더라(장선)

頻數 郡北面本常里 시흥군북면보다에서 보기 본 시흥군북면보다에서 교로(永登浦)사는김정이와 교육 명이 기막 명하다 가 명이 등 포지 생물이 나나마 주리 참자를 제우라 나마 주리 참자를 제우라 가 발각되면 대로 기관이 가 반각되면 대로 기관이 가 발각되면 대로 기관이 가 반각되면 대로 기관이 기관하더라 기관이 가 반각되면 대로 기관이 기관하더라 기관하다고 기관이다고 기관하다고 기관이다고 기관하다고 기관되다고 기관하다고 기관되다고 기관하다고 기관되고 기관하다고 기관하다고

辰牛一

一頭를

교리의 한주 유신서관(維新)의 뒤벽을뜨리고불품들길 사실이 있더니 지난이십오 전단자가 전투시장에 또한 었던자가 전투시장에 또한 었던자가 하나 정도리우다주의 회사

지수건의 내가어제밤에아니오 불씨병에 그게집일등등때매워드수 건인대 여기나의 위모양입니다 여기는데 모이스 아니 그별등이로 다음에 되는데 모이십니다 무리리는 접이나의 사용에 떠나는밖의 보이열리는 접이나의 사용이었던 그러산란하게 느러노막의 무이일리었다 기사 왕이었던 그 하일도 뛰어나러 가는 바이일리었다

무대 가장에는 등대가예를지어 다니며 가축(家畜)을만하상한다는데지 당인민들이 가축(家畜)을만하상한다는데지 당인명회에 기품면용면통 리 비) 등대로가바려라는바리지 아버지를 잘하는바리로 달산면 등을 하다하며 이십일일에 사람들은 이 어서 왕래하는이 등의로 가바려다는바리 사고두로 당하다하며 이십일일에 사람들을 잘하는바리는 무실학원이로 부근 사고등로 장애하는이 등을 잘하는바리로 사고두로 당하다하며 이십일일에 이 무물을 하다하며 이십일일에 이 무물을 가나되는 등을 잘하는 이 들을 잘하는 이 들을 잘하는 이 등을 잘하는 이 들을 잘하는 이 등을 잘하는 이 들을 

假

王

(<del>1</del>)

一コリス震撃石が8年

子

하였더니 대작는 편잔주는말로 당개수건만보시고도 그런줄을 모르셨습되었습니다 급히로국왕 이잇슬곳을 차귀깃더니 그문으 이이슬곳을 차귀깃더니 그문으

車脫線

) 심사일으후일곱시이시 9:81(成興驛)을떠난데이 1:50(成興驛)을떠난데이

**會議 濟 生 堂 製 薬 所** 

원의 병원출출 것지물에 장인 가역불화로 그이듬해 자괴남편에게 맛기고개 (他鄉)에서 한구(欄口) 한병면에 안해 가지 일캐

지되

야면

자명(海南)이 ( 지명 기 전명)

一番が変ない

한일우리가 문작이보기자 사건

그곳이 있는는 만하면 공작이

는것을 모르고한참머닷거

면 궁성으로가자」하고

딸

부친은 다만압길

(市內超林會)간부일등의 당하모니가한주와 송주 명(松竹繼術團)의 교혜경양(松竹繼術團)의 교혜경양(祖代雪과사화정양(後代自襲)의음도(音樂舞蹈)는관증하게 흥도(音樂舞蹈)는관증하게 흥도(音樂舞蹈)는관증하게 함시 대육회면 상당장식(演響部長지급組) 장당장식(演響部長지급組) 장당장식(演響部長지급組) 智能 古开 千 日 五 자의 『스부리·건과 부리진절과 한성되었습니도 한병하여 보신구 보신구 이 노력하였습니도 한병이 보신구 모부터 제원이급해하여 유급복 구에 노력하였스나 약에시간이 나는게 이십시일으면 두시에야 당착되었는데 다행히 부산자 느업다더라(원산)

어를 지으려는 부친의마 진리려니와 부친을아지못 로 보내는 그어린마음이

나지안했다자그리한 함께 한당상으로아보기 어려워 다하아지급으로부터 질턴 일반설되트해봅에 그의 일반설되트해봅에 그의 집모에게 있며그렇네 성으로에게 있며그로보내 지도에게 있며그로보내 지도원이 등을 집단하고

다이카리사이 상황명이 아이얼 바이 그의

의 아파다름이었다고 주단의로 레 에지상주의(殿変至上主義)를부 리지첫다 그러나 그는도를만흔 가 나이하라 첫단해하는 자귀인해 의불상한 최대(廣地)를 도라보 다 그만정실이 부음과 모든것을 단면하고 있습을 희생한짓도한 다면하고 있습을 희생한짓도한 다 그만이아나였다(지속)

응 모라나는듯이 달리었다 사매자는 공작이보하지 아닐때 사매자는 공작이보하지 아닐때 의를 할신나초며 얼굴에 다리 가족 의를 할신나초며 얼굴에 다리 가족 무지 속을 기치하지 못하고 한 일 때 바였는것을 후회하고 분해하였 나기다리고있다가 무장보기 아모일도 업다는것이 보명하나다를 기계 한 일 등 이 나이 무슨이 보명하다 나는 무슨이 나오는것이 보명하다 나는 무슨이 나오는 것이 보명하다 모일도 업다는 것이 보명하다 그 무에게 의 등이 이 나이 무슨이 가무슨 소리인지 아라는 지의에 의 등이 되는 사대자의 말에

五大博士大家發見有名きか早十

9日華 8

【學理の實際講義書】『無

代是得智力

『그 것이 무슨말씀이 오늘하고 무릿

· 연하가대판식에 오시게되 · 어느 아모일이 엄다는데엇 - 그놈들이야기 하는눈치기 하가서아라보라는것이

(大田病院)에 입원치료등이라

移葬が工罰金

십원식물었다고

교 발발기름이 때우피곤한기운 대 될수있는대로 자조결리어왕 이사냥다니는 별중이로 항하였 는데 소위진당소식이 아모일도 점다니 아모일도 업다는말으로 구왕기 아모일도 업다는말으로



발중이 멀리보임으로 말을칠 착이 되얏스나 마조나오는사람 의귀색이 하나도업첫다 우리가 말우해서 급히나리엇는데 사대 자가나의딸을봇들며

할수 방계업성다

여러가지로 하리를

의로 의연내가 나려다보았더니 의로 의연내가 나려다보았더니 에게 비단수건이 대명성조각 에게 기도였다 대좌를 돌라보았







